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려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려명거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태양절전으로 려명거리건설을 기어이 끝냄으로써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할것을 건설에 동원된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건축물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려명거리의 웅장한 자태가 완연하게 드러났다고, 당의 대건설구상을 불같은 헌신과 완강한 실천으로 꽃피우기 위해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려명거리조감도와 사관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방향에는 정중성의 원칙에서 건물들을 높지 않으면서도 보기 좋고 아담하게 건설하였으며 룡흥네거리의 영생탑방향에는 상징성의 원칙에서 초고층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웅장화려한 건축군이 형성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려명거리에 여러개의 살림집구획들을 설정하고 매 구획들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건물들을 일떠세운 결과 거리안에 거리가 생겨났다고 하시였다.

려명거리를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녹색형거리로 건설하기 위해 태양빛과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기절약기술들과 지붕 및 벽면녹화기술 등 녹색건축기술들을 광범히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여러 건물들의 기단층과 지붕에 나무들과 잔디를 심어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는 해빛을 방지하여 건물의 내부



자기의 손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 폭풍노도처럼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상, 하늘을 찌를듯이 높아가는 사회주의문명을 과시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는 적들의 발악적인 군사적압살책동과 경제제재속에서 진행되는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히 거리형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군대와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최근 해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거리들을 하나씩 건설하였으며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이전의 거리들보다 비할바없이 큰 려명거리건설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진행하고있는것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과 한계를 모르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하시면서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려명거리가 완공되면 우리 공화국의 자력자강의 힘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또다시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려명거리건설장은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는 전구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이 최후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마지막승승주로를 힘차게 달림으로써 려명거리건설을 태양절까지 무조건 완공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온도가 올라가는것을 막고 겨울에는 보온작용을 하여 내부온도가 떨어지는것을 막을뿐만아니라 환경보호에도 아주 좋다고, 비물리용체계도 받아들여 비물을 지하탱크에 잡았다가 건물지붕우에 꾸린 온실들과 녹지에 관수할수 있도록 하였는데 잘했다고 하시였다.

초고층살림집들이 불만 하다고 하시면서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70층살림집이 장관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층수가 제일 높은 살림집이 려명거리에 일떠섰다고, 초고층살림집의 아래층부분에 보기도 좋고 안정감이 나는 기단층을 형성하였으며 특색있는 편의봉사시설들을 꾸리고 있는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공동살림방, 부모방, 부부방, 서재, 부엌 등으로 이루어진 살림집이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여름철에는 더운 공기가, 겨울철에는 찬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베란다에는 자연채광창을 달아주고 방들에는 겸창들을 설치하였는데 잘하였다고 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새 교사들과 기숙사

는 물론 살림집지구들에 일떠서는 탁아소, 유치원, 세탁소, 옷수리소, 구두수리소, 체신소 등 공공건물들과 편의봉사시설공사도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정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전투조직과 지휘, 로력과 설비, 자재보장사업을 잘 짜고들 데 대한 문제, 건축물들의 내외부공사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다그칠데 대한 문제, 전기, 난방, 급배수계통시운전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녹화 및 지대정리사업을 따라세울데 대한 문제, 녹색건축기술이 도입된 주택과 공공시설들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 려명거리건설완공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독창적인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려명거리건설장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이곳을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의 지상락원을



민족 전통과 그 계승

은 나라가 민족명절을 쇠는 기쁨에 휩싸여있다. 거리들은 설명절을 축하하는 그림판들을 비롯하여 갖가지 화려한 장식들로 일색이다. 가정들과 식당들에서는 전통적인 설음식(세찬)향취가 풍긴다. 우리가 만난 오영식 국립민족예술단 단장, 김경민 피바다극단 예술부총장은 설명절을 위해 화려한 예술공연무대를 마련하였다고 했다. 상점들도 찾아오는 손님들로 흥성인다. 각 곳의 체육공원들엔 학생소년들이 땀이끼, 연떡우기, 제기차기놀이로 여념이 없다. 민족의 오랜 역사와 문화전통이 그대로 생활로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세태가 반영되어있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설맞이풍경의 이모저모이다.

민족전통에는 하나의 피줄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대대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넋이 숨배여있다. 민족의 생활은 다양하며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의 우수성은 민족유산과 전통에 의하여 후세에 길이 물려지게 된다. 민족적풍습은 민족성의 집약적인 발현이다. 민족명절과 민족놀이, 민족의상과 민족로리 하나하나에는 민족의 슬기와 정기가 그대로 깃들어있는 것이다.

일찍부터 주제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전래의 민족전통과 풍습을 적극 살

려나가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과 로고를 기울이시었다. 민족전통을 적극 살리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명절뿐아니라 정월대보름, 추석(한가위)과 같은 민족명절들을 더 뜻깊게 쇠도록 하여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생활전통을 잘 살려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다.

지금 사람들이 즐겨먹는 개엿, 잣엿, 강냉이엿, 수수엿 등에도 조선엿은 가지수가 여러가지며 수수나 강냉이로 만든 것도 있고 흰쌀이나 찹쌀로 만든 것도 있으며 감자나 고구마로 만든 것도 있고 엿에 깨나 잣을 묻혀 먹는 것도 있다고 하시며 조선엿의 전통을 살리도록 일일이 가르쳐주신 그이의 보살핌이 깃들어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자주

그곳을 찾아 마걸리, 룡두지 집, 설기떡, 김치, 콩나물찬 같은 음식을 들곤 하는데 늘 별맛입니다.》

설명절을 쇠며 칠골민족관에 간다는 고려의학과학원의 한 연구사의 말이였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족이 사라지면 민족적감정도 흐려지고 민족에도 식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이 널리 장려되고 면면히 이어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이 민족적인 정서와 풍조가 짙은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세태가 반영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

려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중시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으신 그이께서는 민족의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계승발전시키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살리도록 하신다.

우리는 민족적향취가 풍기는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민족미술을 발전시키고 태권도, 씨름을 비롯한 민족체육을 장려하며 유희오락을 하여도 웃놀이, 땀이끼와 같은 민족놀이를 많이 하도록 하며 민족음식과 조선옷을 장려하고 고상한 우리 말과 인사법을 잘 살리며 고려의학과 민족적건축형식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이시다.

남성들이 결혼식때나 명절날

에 입는 조선바지저고리차림에도 민족옷단장을 장려하도록 하시는 그이의 세심한 가르치심이 어렸고 그이께서 새집들이한 가정을 축하방문하실 때 기념품으로 들고가신 성냥을 비롯한 생활용품들도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는 뜨거운 민족애가 어려였다. 우리 민족의 세태 풍속을 반영한 민요가락으로서 민족의 얼이 스며있는 《아리랑》이라는 글자가 상표로 새겨진 손전화기를 보시고는 우리 상표를 단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야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안겨줄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에도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가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박차를 가

신 그이의 열렬한 민족애와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메아리로 울리고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훌륭히 계승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의 얼이 살아 맥박치는 민족의 성지》, 《어제도 오늘도 변색되지 않은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본다.》고 소감을 내놓았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는 강권과 전횡, 간섭을 추구하는 지배세력, 침략세력의 민족성말살과 동화정책에 따른 《세계의 일체화》, 《국적없는 문화》 책동에 의하여 자기의 민족문화와 전통, 생활양식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 본래의 모습을 잃고있는 민족들이 수다하다. 잃어버린 민족성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민족성이 사라지면 민족이 자기 존재를 마치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치는 철리이다.

민족의 넋과 슬기가 어린 전통적인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의 유쾌하고 량반적인 회열에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도 명도자를 잘 만나야 빛이 나고 곳곳이 계승된다는 것을 가슴후덕게 절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리 설



사리원 민속거리



에
민
현
신
의
길
에
서

인민이 승마의 주인

주제 101(2012)년 11월 중순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림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승마장을 찾으시였다. 당시 승마장은 인민군군인들의 기마훈련장이였다.

기마훈련장의 곳곳을 돌아보시고 친히 말을 타고 달리시며 기마주로의 상태까지 상세히 가늠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로의 상태가 괜찮다고, 이 기마훈련장은 승마운동을 하기에는 적합한 곳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기마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꾸릴것을 결심했다고 하시였다.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주제 101(2012)년 1월 24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설명절을 맞으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학원에 도착하시어 원장의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설명절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며 설명절기간에 가볼데가 많았지만 장군님을 그리며 울적한 기분에 잠겨 설날을 보내고있을 원아들을 생각하여 학원부터 찾아왔다고, 올해 설명절은 아버지장군님을 뵈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 내가 원아들의 부모가 되어 명절을 함께 쇠야지 누가 쇠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환호성을 터치는 원아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시고는 먼저 기념사진부터 찍자고 하시면서 환호하는 대렬앞으로

이날 그이께서는 지금 평양시의 곳곳에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으니 로라스케트라는 바람이 불고있는데 승마장이 꾸러지면 승마운동바람도 일어날 것이라고,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훌륭히 꾸러진 승마장에 와서 승마운동을 하는 과정에 몸과 마음을 단련할뿐 아니라 생의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짓으시였다. 그리고 새로 개건되는 승마장이 미림지구에 있는 것만큼 명칭을 《미림승마구락부》라고 하여야 하겠다고, 승마구락부를 훌륭히 꾸려 우리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렬앞줄에 있는 한 학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면서 춤지 않는다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춤지 않다는 학생의 땀방울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학원일군에게 손을 차다고, 추운데 어서들 장갑을 끼게 하라고 이르시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손을 흔들고있는 한 학생에게 울지 말고 사진을 찍자, 울면 사진이 잘되지 않이라고 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도 비추시였다.

그날 어둠이 짙게 드리운 저녁 늦게까지 학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무엇을 더 해 줄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주겠으니 만경대혁명학원을 으뜸가는 교육의 전당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주자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현지지도에 비끼 위인의 거룩한 세계

인민과 맺으시는 약속

사람들사이에 무수한 약속들이 맺어지고 이루어진다. 약속은 흔히 친우나 사랑하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지기도 하지만 큰 범위를 넘어 한 나라의 수반과 인민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을 찾아가시는 그 어디에서나 많고많은 사랑의 약속을 맺으시고 끝없는 헌신과 실천으로 그 약속들을 꽃피워가고 계신다.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에 가면 입사하는 날 다시 와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어 기념품을 안겨주고 새집들이경사를 축하해주시고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 노동자들과 허물없이 찍으신 영광의 기념사진들이 모셔져있는것을 볼수 있다.

부모없는 아이들이 사는 육아원과 애육원, 중등학교에도 원아들이 새 집에 이사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릴 때 꼭 다시 찾아와 원아들의 글 읽는 모습도 보고 체육경기 도 보아주시며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움의 약속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공장과 협동농장 지어는 조국방북년의 한끝과 열점지역들에 위치한 섬방어대의 작은 집

속을 맺고사는 행복한 가정과 주민들이 살고있다.

인민과 맺으신 하많은 그 약속들에는 자신의 온몸과 넋을 깡그리 불태워 그 열과 빛으로 인민에게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려는 무한한 헌신의 세계가 비껴있으며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못다 바치신 열정이 있으신듯 늘 마음쓰시고 아쉬워하시는 원수님의 마음속무게가 담겨져있는 것이다.

나를 주시면 열을 주고 싶어서이고 열을 주면 백, 천을 주고싶어 자정이 넘은 날 다시 와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어 기념품을 안겨주고 새집들이경사를 축하해주시고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 노동자들과 허물없이 찍으신 영광의 기념사진들이 모셔져있는것을 볼수 있다.

부모없는 아이들이 사는 육아원과 애육원, 중등학교에도 원아들이 새 집에 이사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릴 때 꼭 다시 찾아와 원아들의 글 읽는 모습도 보고 체육경기 도 보아주시며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움의 약속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공장과 협동농장 지어는 조국방북년의 한끝과 열점지역들에 위치한 섬방어대의 작은 집

다 인민에게 안겨주시려

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길에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사랑과 기적의 전설이 또 얼마나 많았던가.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압살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섰지만 원수님께서 인민들이 밝은 눈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최상급의 안과전문병원을 세워주시고 현대적인 설비와 시설들까지 그쁘히 갖추주시였다.

뜻밖의 자연재해로 북부 지역의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밤새 잠 못이루시며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인민들을 새 집에 입사시켜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려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신 원수님이시였다.

인민들에게 보다 큰 락을 안겨주시려 천만헌신을 다해가시는 원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날과 달이 흐르고 이 땅은 더욱 몰라보게 변모되어가고있다.

새해정초부터 김정숙평양체사공장의 로동자들뿐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며 로동자들의 궁전, 호텔로 솟아오른 현대적인 로동자합숙소는 지난해 6월이 공장을 찾으시어 남기신 원수님의 약속이 꽃피운 하나의 사랑의 결정체

인것이다. 올해에도 원수님의 약속

이 실천이 되여 이 땅우에 일떠서게 될 황홀한 거리와 공장, 유원지들은 또 얼마나 많을것인가.

부부는 희망과 포부, 래일에 대한 략관으로 새해를 맞은 이 나라 인민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그이가 계셔 더 좋은 멋진 래일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확신과 신심을 더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부,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것을 새해의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신 원수님이시다.

인민앞에 하신 그 맹약, 인민을 하늬처럼 떠받드는 총부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으로 조국의 새해가 밝았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인민을 위한 시책이 되고 정책이 되여 이 땅을 변모시키고 기적의 힘이 되어 만리마시대의 희한한 별천지를 펼쳐놓을 이 땅의 2017년은 더욱더 장엄하고 환희로운 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월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길

정초부터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발걸음은 조국방선초소들에도 이어지 고있다. 그이께서는 최근 조 선인민군 구분대들을 시찰하 시였다. 새해벽두부터 훈련 열풍으로 낮과 밤을 맞고보 내는 인민군장병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 대와 구분대의 싸움준비정형 과 군무생활실태를 구체적으 로 알아보시였다.

조국을 지켜 총잡은 병사들 은 인민의 아들딸들이어서 그이께서는 인민사랑의 정과 보살핌으로 군인들의 침실을 돌아보시며 난방보장장치를 세심히 알아보시였다. 취사 장에도 들리시어서는 음식감 들을 눈여겨 살피시며 중대 를 꾸민 식탁과 포근한 잠 자리가 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도록 할데 대 해 이르시였다.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생활 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봐주며 훈련과 군무생활에 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군인들이 오직 훈련에만 전심전력하도록 해 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리발실을 비롯한 군무생활 에 필요한 요소들을 손색없 이 잘 꾸려놓았고 특히 세목 장의 물탕크에 수질이 좋은 물이 가득차있는데 훈련장에 서 땀을 흘린 군인들이 마음 껏 몸을 씻으며 좋아할것이라 고 기뻐하신 그이의 말씀에는 병사들을 친부모의 손길로 돌 보시는 웅심깊은 사랑의 세계 가 담겨져있었다.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이 자 나라와 인민의 안녕이다.

군인들이 자나깨나 싸움준 비만을 생각하면서 고도의 격 동상태에서 경상적인 전투동 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 록 하시는 그이께서는 군사 강실, 군사대상물들을 돌아 보시고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투행동방식, 전투조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에 구현하 기 위한 훈련을 실속있게 벌 려 지휘관과 전투원들이 맡겨 진 전투임무를 능숙히 자립적 으로 수행할수 있게 준비하

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 다. 이어 그이께서는 지휘관 들이 싸움준비완성을 두고 늘 사색하면서 훈련에서 당정책 화, 실전화, 현대화, 과학화, 다각화를 훈련혁명의 중심고 리로 틀어쥐고 훈련을 강도높 이 조직진행하도록 할데 대해 지적하시였다.

군인들의 훈련을 지도하시 면서는 훈련을 실천의 분위 기속에서 진행하여 모든 군 인들이 강의한 정신력과 완강 한 투지, 높은 전투능력과 자 질을 소유한 만능병사로 준비 하도록 할데 대해 가르치시였 다. 사상이 강하고 군대가 강 하면 무서울것이 없다고, 적 들과의 대결은 불과 불의 대 결인 동시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짝 들어 찬 군인들의 정치사상적우세 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 장한 적들을 타승해야 한다 고 하신 원수님이시였다. 군 인들을 다변종화, 다기능화 된 현대전의 능수, 펄펄 나는 맹수들로 준비시키도록 할데

대한 문제, 군부대주둔지역 을 철벽의 요새로 다지며 병 영과 주둔지역의 산들을 수림 화, 원림화, 과수원화 하도록 하는 문제 등 지휘관들과 병 사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구체 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눈덮인 산야와 얼 음버께가 낀 강하를 지나 종 횡무진으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는 시찰길은 인민을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드는 길,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되시려 는 인민사수의 길, 멸사복무 의 장정이다.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야 나라의 재 부를 늘이는 자강의 동음을 높이 울릴수 있고 인민의 안 녕과 행복도 있는것이다.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 책동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 을 증추로 하는 자위적국방 력과 선제공격능력을 부단히 강화하여 나라의 평화와 인 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 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 의 철의 신념이고 드림없는 의지이다.

적대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책동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욱 의기양양해지고 미래를 띠 관하며 자강력으로 자기의 앞길 을 개척해나가는 온 나라 사람 들이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들으며 솟구치는 격정 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지난 한해는 위대한 수령님들 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리 라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원수님 의 인민사랑의

늘로 떠받드시며 인민의 복리 를 위해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 신 그런 위인들은 있어본적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그대로 현실로 펼쳐져 인 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 는 현실을 실생활로 체험한 이나 라의 인민들이다.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

인민의 믿음

다듬게 된다 고, 티없이 맑 고 깨끗한 마 음으로 인민을 총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복, 충실 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한다는 그이 의 말씀에서 인민들이 새겨안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원수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뭉쳐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의 부름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는 더 좋은 래일에 대한 굳 은 확신이며 원수님만 따르면 통 일된 조국의 새날은 밝아온다는 믿음과 확신이다.

령도자의 사랑과 인민의 보답 으로 가꿔진 탐스럽고 알찬 열 매들로 2017년은 더욱 풍요로울 것이다.

고 깨끗한 마 음으로 인민을 총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복, 충실 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한다는 그이 의 말씀에서 인민들이 새겨안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원수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뭉쳐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의 부름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는 더 좋은 래일에 대한 굳 은 확신이며 원수님만 따르면 통 일된 조국의 새날은 밝아온다는 믿음과 확신이다.

령도자의 사랑과 인민의 보답 으로 가꿔진 탐스럽고 알찬 열 매들로 2017년은 더욱 풍요로울 것이다.

옥철웅

본사기자 현은경

— 금릉을 동관 —

누구나 즐거찾는 운동봉사기 지

평양의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금릉운동관은 매일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로 흥성이고있다.

금릉운동관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취미와 기호에 맞는 운동기재들을 리용하여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에 대단 히 좋은 여러가지 운동을 진행 할수 있게 꾸려진 현대적인 운동봉사기 지이다.

1층에 있는 사격장은 모든 요소들이 국제사격동맹이 제 정한 표준규격에 부합되게 꾸 려져있어 이곳에서 사람들은 경기용공기총(보총, 권총)으 로 자기의 사격술을 정확히 평가받을수 있다. 손님들은 사격을 한 후 목표판을 사격 좌치까지 끌어당겨 명중률을 직접 확인해볼수 있다.

금릉운동관의 2층에는 스쿼 쉬장, 기재운동실, 룰동체조 실, 탁구장이 자리잡고있다.

최근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건강운동의 단연 첫 자리 에 놓는 스쿼쉬는 4면이 막 힌 방에서 정면의 벽을 향하 여 두사람이 채를 가지고 서 로 엇바꾸어 공을 치는 경기 인데 남녀로소가 다 즐길수 있고 또 스트레스해소에 대 단히 좋은 운동인것으로 하여 손님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 다고 한다.

상대편의 심리를 포착하고 몇수 더 앞을 내다보면서 벽 에 대한 입사각과 반사각을 고려하여 공을 치는 지적이

고 심도있는 경기여서 스쿼쉬 를 일명 체육계의 장기라고도 부른다.

룰동체조는 금릉운동관에서 녀성들의 특별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룰동체조실 옆에 있 는 기재운동실에서 손님들은 10여종에 20여대의 운동기재 들을 리용하여 육체부분별훈 련 및 몸단련을 할수 있다.

운동관에서의 모든 운동들 은 철저히 전문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봉사원들의 친절하고 과학적 인 지도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운동관에는 탁구 장과 수영장이 훌륭히 갖추어 져있어 탁구에호가들과 수영 애호가들도 많이 찾아온다.

운동후에 손님들은 예로부 터 우리 나라에서 좋은 약재 로 리용하여온 황토와 옥돌, 소금, 마노, 숯으로 벽과 천 정, 바닥을 마감건재처리한 황토숯한증방, 썩증기한증방, 천연소금한증방들과 특색있는 썩은탕, 피부의 탄력과 율력을 더해주고 젊음을 유지하게 해 주는 얼음욕탕에서 충분한 피 로회복도 할수 있다.

현대적인 운동시설들이 그 쫓히 갖추어져있고 봉사원들 의 과학적인 지도가 안받침되 는것으로 하여 금릉운동관은 누구나 즐겨찾는 운동봉사기 지로 인기를 모으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시 초

행복의 폭포

김영일

가방폭포

아이들에게 가방을 메워주시려는듯 오래도록 놓을줄 모르시여라 갖가지 오색찬란한 아이들 가방 너무도 기쁘시여 자꾸만 쏟아보시네

별세상에 와본것 같다고 오늘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하시는 원수님 온 나라 아이들의 학부형 되시여 기뻐 하시네

그이의 눈가에 어려와라 새 교복을 입고 새 가방 메고 웃고 떠들며 학교로 가는 아이들 그들의 웃음으로 노래소리로 더 아름다워질 이 나라의 밝은 미래가

작은 아이들의 가방이 그이겐 이렇듯 하늘같은 기쁨인가 가방사태, 가방풍년, 가방폭포앞에서 아버지의 미소를 지으시는 원수님 그이 가슴속에도 기쁨의 바다

아이들이 꿈을 담아라 너희들의 가방은 비록 작아도 온 세상 만복 다 안겨주시려는 원수님 사랑의 세계가 담겨있단다 얼마나 아름다우랴 너희들의 앞날은

이불폭포

누구라 다 알리 폭포라 하면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쉬임없이 줄기차게 쏟아져내리는 물줄기

허나 여기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이불폭포가 쏟아져내리네 여름이불, 겨울이불 봄가을이불, 결혼식이불 아름다움 꽃이불폭포가 쏟아지네

때는 한겨울이여도 사랑의 이 폭포는 얼지 않는다네 봄가을 이불에는 진달래가 만발하네 겨울이불에는 목란꽃이 곱게 웃네

장쾌하구나 이불폭포여 포근한 우리 명주솜 우리 비단천 볼수록 장관인 이불폭포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쏟아져내리네

온 나라 가정 집집마다에 파도처럼 이불폭포 그려보시며 환하신 미소 지으시는 원수님 줄지어 나오는 갖가지 이불들은 말그대로 이불의 바다이런가

아, 이불폭포 하늘같이 높고높은 원수님의 인민 사랑 그 사랑에 시원을 둔 폭포여 인민의 가슴엔 행복이 출렁 내 나라엔 기쁨의 파도가 출렁

웃음폭포

어떻게 합숙이라 부를수 있으랴 다들 궁전이라 이구동성 말하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덩실한 합숙 볼수록 감탄 절로 나오는 원수님 지어주신 로동자합숙

달리는 말할수 없는 궁전이라네 아늑한 침실에 대중식사실, 생일식사실, 체육 및 오락실

입가리고 웃는다는 새침데기 처녀 포근한 잠자리 살펴봐며 그만에야 너무 좋아 입 다물줄 모르네 침실의 거울앞을 떠날줄 모르는 처녀 연지끈지단장 않고 웃기만 하니 웃음으로 네 얼굴 단장할테나

너도 나도 웃네 저기선 민속오락 즐기며 웃고 마당에선 흥겨운 체육경기로 웃음폭포 원수님 사랑속에 꽃피여라 온 합숙이 그대로 웃음바다

일터에선 이불폭포 합숙에선 웃음폭포 생활이 웃음이고 웃음이 생활이라네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로동자들의 궁전이 내 나라에 있어라

행복의 폭포

학부형이 되시여 가방공장 찾으시 더니

오늘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오시였 는가 원수님 찾으신 김치공장 이곳에도 어려있구나 원수님의 다심하신 인민사랑은

우리 민족의 향취가 어려있는 김치 누구나 흔하게 불러왔고 또 누구나 흔하게 담그어오던 그 김치란 말을 놓고 온 나라 인민은 격정에 다시 불려보 나니

인민들의 더 좋은 생활을 위하여 늘 마음써오신 어버이들의 마음 그 간절하신 마음이 떠받든 김치 공장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재부여

통배추김치, 석박김치 어린이영양김치, 콩나물김치...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그이 안광에 따스하게 어리는 미소여

예로부터 김장은 집집마다에서 녀인들이 담그어온다 하였건만 이제는 달라진 새 풍경 계절을 모르고 공장에서 갖가지 김치가 쏟아져나오 거니

얼마나 아름다우나 이 땅은 새해정초부터 전해지는 기쁨의 새 소식 인민들이 기다리는데 제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려 새해의 첫 대문이 열리었구나

행복의 폭포가 쏟아져내려 새해의 첫 대문이 열린 2017년 이 한해도 그렇게 이어지리 세세년년 행복의 폭포는 영원하리



김치공업화의 표준, 본보기공장

◆ 류경김치공장을 찾아서 ◆

민족의 자랑 - 조선김치

김치라고 하면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민족음식의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금과 같이 귀중한 음식이라는 의미에서 금채라고 불리우다가 흐르는 세월속에 김치로 그 발음이 고착되었다고 하는 김치는 옛적부터 우리 겨레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으로 되고 있다. 발효식품인 김치는 비타민 A, B, C가 풍부하고 건강에 리로운 균이 많아 소화 잘되며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서 특별히 효과적이라고 한다. 하기에 어느 한 나라의 건강식품월간잡지는 《세계최고의 건강식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김치를 세계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꼽았다. 인민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것이 김치이지만 추위속에서 김장을 담그어야 하는 우리 인민들의 수고에 대해 마음쓰시면서 김치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김치를 공업적방법으로 만들데 대한 과업을 내가 처음 준것은 해방직후의 일이라고, 지금은 김치연구소까지 조직되어 있는데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하여 5, 6층 아파트에서까지 김치독을 밖에 묻고 김치를 하루에도 몇번씩 옮겨가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있다고 심려의 교시를 하시었다. 그리고 김치생산을 공업화하면 남새도 많이 절약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해마다 겨울김장용남새를 세대별로 공급하고있는데 김치를 공업적방법으로 만들어 세대들에 공급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이처럼 김치의 공업화는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직접적인 발기와 깊은 관심속에 시작되었고 발전하여 왔다.

김치공업화의 본보기-류경김치공장

류경김치공장은 지금까지 김치공업화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욱 맛 좋은 김치를 생산해내는 김치공업화의 본보기, 표준단위이다. 원료세척으로부터 탈염, 탈수, 양념혼합, 제품보관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자동화된 공장은 연간 수천톤의 갖가지 김치와 각종 장절임, 수백의 버섯가공품을 생산할수 있게 되어 있다. 생산조직과 경영활동, 품질관리의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배추와 무우를 지하에서 수

강기와 수직콘베어를 통하여 공급할수 있게 하고 배추자동공급기, 무우자동공급기, 깎두기절단기, 용기세척기, 양념공급기, 진공포장기 등 현대적인 설비들도 그뿐하게 갖추어놓음으로써 운반과 절임, 세척 등 생산공정들에서 손로동을 극력 줄일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고도로 자동화, 로봇화된 설비들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한것은 모두 국내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실로 자력자강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다.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여러 공정들을 돌아보시고 모든 생산공정들이 치차처럼 빈틈없이 잘 맞물려졌다고, 자동화, 흐름선화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실현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을 우리 힘과 기술로 또 하나 일떠세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돌이켜보면 평양시민들에게 맛 좋은 김치를 사철 정상적으로 보내주자면 공업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김치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고 몸소 공장의 이름도 《류경김치공장》이라고 명명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지난해 6월 공장에 찾아오시 여서는 설계자, 시공자들도, 운영자들도 미처 느끼지 못한 생산공정의 불합리한 개소들을 즉석에서 꿰뚫어보시고 그 해결대책도 세워주시었다. 이렇

듯 그이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속에 류경김치공장이 오늘과 같이 맛있는 김치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김치공업화의 본보기단위로 전변되게 되었다. 흔히 김치맛은 담그는 사람의 손맛에 따라간다고 하면서 체순으로 담근 김치가 제일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맛보게 되면 그 맛이 기가 막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 아닌게 아니라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된 갖가지 김치들이 평양시내 여러 식당봉사장들에서 봉사되고 있는데 그 인기가 대단하다. 이런 김치공장들이 각 도들 마다에도 일떠서게 되어 김치의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날도 멀지 않았다. 지금 류경김치공장에서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할 목표를 세우고 생산과 기술혁신을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 만반진수 차려놓고 김치작 두기 없으면 아주 맛 없네 ... 이 노래는 누구나 즐겨부르는 《김치작두기의 노래》이다. 김치는 조선민족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민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민족 전통음식이다.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만가지 맛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도 김치부터 먼저 찾았으며 사계절 그 종류와 가지수를 헤아릴수 없이 많은 갖가지 김치들을 담그어먹었다. 특히 겨울철에는 깎두기와 통배추김치를 비롯하여 무우와 배추를 주원료로 하는 김장을 품들여 해놓고 그것을 반년식량이라고 까지 말하며 즐겨 먹었다. 나무는 물을 먹으며 살고 다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바로 이런 조선김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김치공장이 평양의 교외에 건설되어 다양한 종류의 맛 좋은 김치를 생산하고있다. 지난해 6월 류경김치공장을 찾으시여 김치양념을 바르는 세부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정초에 또다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김치들이 쏟아져 나오는 기대앞에 서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류경김치공장에 모시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

는가고 하시었다. 정말이지 인민들이 즐겨먹는 김치 하나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로고와 헌신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배추김장을 해보았으면 하는 량강도인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과학자들에게 과업을 주시여 남새채배라는 말조차 모르던 북부고산지대에 알맞는 배추종자를 육종해내도록 하시었다. 해산시주변에는 남새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장들을 내오도록 하시여 백두산기슭에서도 남새농사작황을 보게 하신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량강도에서는 먼저 남새부터 자급자족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그를 위한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속에 통배추김치는 평양으로부터 조국의 북부 백두산기슭의 작은 마을, 작은 집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 그 어디나 향취를 뿌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치공장건설을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모든 조치들을 취해주시었고 완공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자욱자욱에 꽃핀 또 하나의 창조물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는 인민들의 생활에 기쁨을 더해 주며 어버이사랑을 길이 전해갈 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통배추김치, 깎두기, 식혜, 장절임에 이르기까지...

세계5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김치는 시원하고 쫄면 독특한 맛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하여 세인의 마음을 사로잡고있다. 그래서인지 류경김치공장을 찾는 사람들은 김치에 대한 류다른 호기심을 안고 제품견본실부터 둘러군 한다. 이곳 제품견본실에는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십

가지의 계절김치들과 단초절임, 장절임을 비롯한 가공제품들이 전시되어있는데 그 맛과 색깔, 향기, 그 종류와 가지수에 있어서 다종다양한것이 특징이다. 시원하고 쫄면 맛이 나는 통배추김치, 백김치가 있는가 하면 매운 맛이 나는 깎두기, 총각김치, 덜 매운맛이 나는 어린이영양김치, 향기로 운 맛이 나는 나박김치, 양념을 배추잎으로 싸낸 양배추

보쌈김치, 배추보쌈김치를 비롯하여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김치들이 제품견본실에 놓여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달래김치, 참나물김치, 도라지김치, 두릅김치며 콩나물김치, 록두나물김치들도 있다. 이뿐이 아니다. 무우, 마늘, 생강, 양배추, 오이를 가지고 만든 맛이 순하고 새콤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나는 갖가지 단초절임들과

진채, 참나물버섯, 달래, 호박, 가지, 깨잎, 고추잎, 고사리, 오이, 느라리버섯, 흰곤봉버섯 등을 가지고 만든 장절임들 그리고 도루메기, 대구, 낙지, 가재미, 명태 등으로 만든 식혜들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슬슬 돌게 한다. 민족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향상한 갖가지 김치상표도안들도 상품의 내용과 특징을 집약적으로 간결하게 나타내는 동시에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향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제품견본실을 돌아보느라면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를 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이 공장의 기술자, 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읽을수 있다. 본사기자 김철호



제17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의장단회의 공 동 결 의 문

오늘 우리는 해내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제17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북측에서는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소집하고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토로 열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범민련은 북측의 애국애족의 호소가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시급히 개선하며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자주통일의 대토로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실천적방도로 되며 이것은 범민련의 기본사명과 올해의 활동방향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자주통일의 길을 앞장에서 헤쳐온 범민련은 7.4공동성명 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 발표 열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의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불같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련은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 앞장에서 노력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전쟁위기를 타개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온 겨레

의 일치한 요구이며 북남관계 개선의 첫걸음으로 된다.

지금처럼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이 전면차단되고 불신과 대결의 골이 깊어간다면 그것은 곧 군사적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범민련은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북남간의 불신과 전쟁위험을 격화시키는 온갖 비방중상과 불순한 적대행위들을 단호히 배격하며 외세와 함께 벌려놓는 각종 명목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강화책동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울릴것이다.

당면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신성한 조국강토를 핵전쟁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싸드》배치를 철저히 저지시켜나갈것이다.

2. 범민련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갈것이다.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출발점이다.

백해무익한 동족대결로 시

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며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지향해나가기 위한 것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굳게 손잡고 뜻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민족의 슬기와 우수성은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며 세계를 놀라게 할 경이적인 사변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을 이 땅위에 펼쳐놓게 될것이다.

범민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북남합의리행을 위한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고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해나가며 북남합의들을 부정하고 그 리행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온갖 대결책동을 철저히 분쇄해나갈것이다.

3. 범민련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켜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이다.

범민련은 올해에 온 민족의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북, 남, 해외 3자련대조직으로서의 책임과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특히 뜻깊은 올해에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해나갈것이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은 북, 남, 해외의 각당, 각과, 각계각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최악의 극단에 이른 군사적긴장상태완화와 북남관계개선과 관련한 당면한 문제뿐아니라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 민족의 장래와 관련한 중대사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의의깊은 자리가 될것이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이며 해내의 온 겨레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여기에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가장 옹호하고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있기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는 마땅히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해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가하여야 할것이다.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일념을 안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이 현실공히 해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과 인사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역사적인 민족대회합으로 되도록

촉박히 하기 위하여 총결기해나설것이다.

범민련은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계급, 지역과 리념, 당파와 소속,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힘을 합쳐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거족적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범민련의 기세는 충천하며 애국애족의 의지는 굳건하다.

4. 범민련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적짓부시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앞장에서 추동해나갈것이다.

범민련은 우리 겨레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저들의 침략적, 패권적야욕만을 추구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전쟁도발책동을 끝장내며 민족분열의 원흉이며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군을 남측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나갈것이다.

남측의 반통일세력을 북남대결과 전쟁으로 부추기는 외세의 민족리간술책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보다 교활하고

은폐된 방법으로 남측에서의 정치, 군사적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에 각성을 높이고 철저히 분쇄해나갈것이다.

범민련은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보다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뜻깊은 올해에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힘을 합쳐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거족적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범민련의 기세는 충천하며 애국애족의 의지는 굳건하다.

북, 남, 해외의 3자련대로 굳건히 이어져있고 해내외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기에 범민련의 통일에 관구업은 필승불패이며 범민련의 기발은 겨레의 장엄한 통일대진군의 선두에서 세차게 나뭇길것이다.

우리모두 자주통일의 선봉대, 민족대단합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 발표 열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빛내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2017년 1월 26일
평양, 서울, 도쿄

북남관계에 활력을 부여준 6.15

북남관계가 사상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는 오늘날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삼킨 리강토에 통일열기가 고조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가 펼쳐졌던 6.15통일시대를 못건디게 그려보고있다.

돌이켜보면 반세기 이상이나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가슴아픈 나날만이 흐르던 이 땅에서 처음으로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게 된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글문자로 아로새겨진 경이로운 사변이었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새 세기 자주통일의 리정표가 마련되고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6.15통일시대라 불리운이 나날들에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전변들이 이룩되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북남사이에는 상급회담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한나산 등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경제와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두렵게 일어났던 분렬의 장벽에 파멸기를 내며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6.15시대에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결코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지 못할 리유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는데 관계없이 북남합의들이 충실히 리행되었다면 북남관계는 오늘과 같이 복잡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것이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는 이미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을것이다.

6.15공동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시작된 환희로운 6.15시대에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친미보수 《정권》이 출현하면서부터 엄중한 장애와 난관에 부딪혔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체질화한 남조선의 리명박보수 《정권》은 발족초기부터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조국통일의 대강이며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용공리적문서》, 《부도난 약속어음》이라고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전면부정하였으며 북남관계를 극도의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갔다.

《신뢰》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도 이전 《정권》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남사이에서 모처럼 마련되었던 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반공화국베라살포와 같은 각종 도발과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해치고 북남관계를 더는 헤어나올수 없는 극도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었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보수패당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데 대한 공화국의 제안에 대해서 《진정성》이니, 《통일전선전략》이니, 《오직 제재와 압박만이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며 히스테리적대결경기를 부리고 침략적인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괴립압살책동에 더욱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보수패당이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망동을 감행하면 할수록 그것은 남조선에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외교적고립, 항시적인 경제위기와 전쟁위험에 빠뜨려놓는 자살행위로 될뿐이다.

남조선의 민심은 집권기간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만 매달려온 박근혜패당을 이미 《탄핵》하였으며 지금 남조선정국은 여야간의 치렬한 권력다툼으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또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이려는 보수패당의 망동은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의 격렬한 항의규탄을 불러일으켜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고립을 자초하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중소기업들이 파산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그 영향이 경제전반에 미쳐 최악의 경제위기에 허덕이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북남공동선언들은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온 겨레가 통일의 그날까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리정표이며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이다.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대화나 대결이나, 분렬이나 통일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돌, 10.4선언발표 열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대토를 반드시 열어나가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총련 일군들 담화 발표

총련 중앙단체 일군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강령적지침으로, 투쟁의 기치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길에 조국통일운동의 빛나는 승리가 있다는 신심을 안고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호소문을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이름으로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그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천명하신 자주적통일로선과 방침을 유일할 통일강령으로 추켜들고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간다는데 앞장설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리정만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리사장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토로 열어나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는것은 재일동포상공인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굳은 결심이라고 하면서 련합회의 호소대로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의의있는 해로 빛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정)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조청일군들과 재일동포청년학생들이 련합회의 호소문을 실현하는데서 조선청년의 사명감과 역할을 다하여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간다는데 특색있게 기여해나간다고 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리영수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호소문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히신 자주적통일로선과 방침의 명명정대성, 북남관계와 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투쟁과업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체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원들은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하여 결렬히 투쟁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김정수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련합회의 호소문에서 제시된 과업실현을 위한 문학예술창작보급사업에 펼쳐나설 결의에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올해에 제2의 6.15시대를 열어놓고야말드높은 기세로 자주통일위업성취에 총매진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요즘 남조선정계라는 강에 기름장어 한마리가 뛰어들어 물을 흐리고있다. 다름아닌 전 유엔사무총장이라는 화려한 비늘로 온몸을 덮은 반기문이다. 가족이나 박근혜라는 독보가지때문에 물이 흐려졌는데 여기에 기름장어까지 저벅저벅대며 첨병거리니 그 오염도가 더해져 말이 아니다. 보다못해 남조선의 한 잡지는 《반기문은 장어가 아니라 연어인듯. 산

박근혜와 반기문의 공통점

란기를 맞아 고향에 돌아오는 연어처럼 선거철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와 로욕을 부린다.》는 글도 썼다. 그 상이 장상이라고 시켜면 그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기문은 박근혜와 비슷한데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기문은 박근혜의 어떤 점을 닮았는가.

민중과 동떨어진 호사스러운 삶

박근혜는 한생을 호의 호식하며 살았다. 어려서는 박정희의 그늘 밑에서 《공주》로 부러운것, 두려운것 없이 자랐고 나중에는 예비의 덕으로 《대통령》감투까지 썼다. 그는 파파늬는 오늘까지도 지난 세기 70년대의 그 오만한 《공주》의 식을 가지고 전횡을 부리며 민중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여왔다. 그러니 민중의 삶을 알 수 없었고 또 민심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의 수백명 아이들이 죽든말든, 남조선의 민생이 망가지든 말든 최순실의 조종을 받으며 일개인만을 위한 악정을 일삼아왔던 것이다. 반기문도 외교관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다. 한때는 외교부 장관을 하고 그후에는 유엔사무총장도 지냈다. 온 남녘인민들이 전두환군사독재 《정권》의 박해와 탄압을 당하던 그 살벌한 시기에도 대양 건너 미국에서 정적을 압살하려는 전두환의 끄나불로서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한 반기문이다.

걸어온 삶이 민중의 생활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나니 이번에 남조선에 돌아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하는 행동마다 여론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광주에 갔을 때에는 한 대학생이 《현실적인 청년

초불민심을 모른다

박근혜는 남조선에서 100만, 1 000만의 초불이 타오르게 만든 범죄의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민심의 준엄한 《탄핵》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털끝만 한 죄의식도, 반성도 없이 오히려 초불민심을 우롱하며 계속 뺏쳐대고 있다. 흔히 비정상인 변호인을 내세워 《초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내들리고 집회자금을 대주며 극우보수깡패들을 《맞불집회》라는데 내몰아 《계엄령선포》를 운운하게 하고 있다. 초불민심을 모르는 반기문도 마찬가지이다. 남녘의 남너로소가 몇 달째 그 추운 겨울날 언손을 호호 불며 광장을 초불

주거정책》에 대해 물었는데 《꺾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대답해 《N포세대》로 전략한 청년들의 삶의 비참상을 너무도 모르고있다는 비난도 받았다. 반기문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입학한 1963년 봄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집권세력의 부정과 비리, 독재와 폭압 정치를 비판한적이 없었다 한다. 포악한 권력 밑에서 신음하는 서민들의 비참상을 외면하고 저 하나만을 위한 편안한 생활을 추구해온 것이다. 한마디로 민중과 동떨어지고 안온한 그의 삶의 행적은 세상을 바꾸라는 민심의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다.

구린 내 나는 부패 경력

로 밝히고있을 때 그는 대양 건너 미국땅에서 사무실의 안락의자에 앉아 초불집회 보도를 한갓 구경거리로만 삼았었다. 초불의 현장에 서보지도 못했고 초불바다의 그 밀바탕에서 무엇이 끓고 있는지, 민중이 왜 거리마다에서 피터지게 《박근혜퇴진》을 부르짖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다. 더우기 그로 말하면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유엔사무총장 이름으로 박근혜가 정치를 잘 한다고 극구 추어주던 추물이었다. 지금 이 시각에조차 남녘민심의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대통령》직무가 정지당한 박근혜에게 전화를 걸며 추파를 던지고 《잘 대처하

시라.》는 구역질나는 말까지 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초불민심은 오늘의 남

무능하기는 마찬가지

한 총장이다.》라고 혹평하였다. 한생을 외교무대에 서 있다나니 그는 정치경험도, 능력도 갖추지 못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인은 《그의 국정수행능력, 정치력에 의심이 간다. (대통령)은 련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반기문은 외교 이외의 경제, 사회, 인권, 민주주의, 역사 등의 분야에서 능력이나 실력을 보여준적이 없다.》고 의혹을 표시했다. 최근 여론조사결과 남조선인민들의 대다수가 반기문을 배격하면서 그 첫번째 이유로 《국정운영과 정치를 못할것 같아서》라고 대답한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구린 내 나는 부패 경력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하여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부정착복했다면 반기문도 부패로 절은 몸이다. 그의 동생과 조카가 미국 럼방검찰에 의해 해외 부패방지법 위반과 사기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사실, 조카가 병역기과자로 지명수배되어있는 사실, 지명수배된 조카가 뉴욕에서 결혼식까지 올리고 반기문이 여기에 참석했다는 사실... 친인척들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반기문자신이 직

접 전 대기업 회장으로부터 23만US\$를 받고 아들이 특혜입사를 한것 등 언론들에 의해 밝혀지고있는 부패의혹사실들은 끝이 없다. 뺑장어는 눈이 작아도 저 불것은 다 본다더니 《기름장어》역시 앞에서는 청렴결백을 떠들며 온갖 생색을 다내고 뒤에서는 제 살 궁냥은 다 한셈이다. 반기문은 모든 부정부패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느니, 자기는 전혀 몰랐다니 하며 발뺌질하고있는데 이 또한 최

영향력있는 유엔의 지도

영향력있는 유엔의 지도급인사로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다시말해 반기문이 10년동안 남녘 유엔발판을 리용하여 새로운 유엔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 수장자리에 자기가 앉을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 유엔기구는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인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조선반도평화위원회》로 명칭을 달기로 하였다. 박근혜는 기구를 내오고 그 수장으로 박근혜를 내세우는 대가로 권력의 자리를 넘겨받고 국제무대에서 박근혜의 몸값을 올려역도가 노벨평화상까지 타먹을수 있도록 서로 정치적밀약을 한 사실이 폭로되어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핵심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리재만이 평소 자기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밝힌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는 권력을 총동원하여 반기문을 다음 《대통령》자리에 들

어려서부터 누군가가 기획하고 관리해온것 같다.》며 통채로 부정해치운 뺑

미일앞에 머리를 숙이는 굴종기질

민족적존엄이라는것이 털끝만큼도 없고 미국과 일본에 덜어놓고 아부굴종하는것, 이 또한 박근혜와 반기문을 한바리에 할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다. 박근혜가 찍하면 미국에 달려가 오바마앞에서 갖은 애교를 떨고 주겠다는 전시작전통제권도 안 받았다고 하였으며 나중에는 위험천만한 《짜드》까지 남조선에 배치하기로 해 민심의 증오와 배격을 받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역도는 재침야욕을 드러내는 일본과 천공노할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영구히 덮어버리려는 《합의》라는것도 한 극악한 친일주구이기도 하다. 반기문도 이에 찍지 않았다. 그의 특이한 친미굴종기질에 대해서는 이른바 《워싱턴포스트》, 《포린 폴리시》를 비롯한 미국언론들까지도 《미국의 푸들》, 《미국의 눈치만 보는 세계장어》역시 앞에서 청렴결백을 떠들며 온갖 생색을 다내고 뒤에서는 제 살 궁냥은 다 한셈이다. 반기문은 모든 부정부패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느니, 자기는 전혀 몰랐다니 하며 발뺌질하고있는데 이 또한 최

뺑스러운 박근혜를 방불케 한다. 남조선의 인터넷에도 《의혹에는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로 대처하는 자세가 어찌면 박근혜를 꼭 닮아 소름끼칠 지경이다.》라는 글이 실려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다고 한다.

민중과 동떨어진 호사스러운 삶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참환영한다.》느니, 《역사가 높게 평가할것》이라느니 하는 얼빠진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민족적존엄이라는것이 털끝만큼도 있는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현 미행정부, 독도를 자기의 고유한 영토라며 소너상실치움직임에 항의를 들이대는 철면피한 쪽발이 일본에게 내줄것은 다 내줄 반기문이다. 박근혜와 반기문의 닮은점은 이외에도 많다. 우의 몇가지 공통점만으로도 결론을 명백히 내릴수 있는것은 반기문은 《제2의 박근혜》라는 것이다. 남조선의 한 야당정치인은 《스스로 한 말조차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고 부패와 무능,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반기문의 행보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 (박근혜2기)에 불과하다.》고 적라라하게 꼬집었다. 《박근혜없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갈망이 넘치는 남조선에서 《제2의 박근혜》가 나타났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심을 우롱하는 또 하나의 해피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사기자 김준경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여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초불시위투쟁은 새해에 들어와서도 계속되고있다. 대소한의 맏판 추위도 아랑곳없이 남너로소가 떨쳐나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벌리는 박근혜심판투쟁은 썩은 정치, 반역정치를 용납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지의 발현이다. 그런데 노도치는 거세찬 초불민심에 헛되어 주먹질하는 열간망둥이들이 있다. 《박사모》와 《어버이련합》,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하여 박근혜의 《호위무사》로 자처하면서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시체장사군》으로 모독하고 진보적으로조단체들을 《종북》으로 매도해온 악질보수단체들이 망라된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결기운동본부》의 어중이떠중이들이 초불집회가 진행될 때마다 맞불집회를 벌려놓고 《계엄령선포》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대고있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21일 보수깡패들은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13차초불집회에 대항하여 맞불집회판을 벌려

놓고 《십자군》을 방불케 하는 창과 투구까지 들고나와 《계엄령선포》라는 기발을 내흔들며 《빨갱이들은 걸리는대로 다 죽어야 한다.》, 《계엄령을 선포해 초불반란군을 죽여야 한다.》고 고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과 14일에도 이자들은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이 답》, 《계엄령은 군내에 일어나라》등의 고향을 질러대며 선전

피의 참극을 부르는 악마들의 잔동

물을 뿌려대는가 하면 특별검찰사무실앞에 물려가 《특검은 공산당 인민재판관홍내를 내고있는 고 급폭도》, 《계엄령을 내러 질서를 잡아야 한다.》라는 폭언들을 쏟아내며 광기를 부리었다. 지어 이자들은 해외에까지 나가 《박근혜탄핵기각결기집회》라는것까지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한중도 못되는 보수깡패들의 《계엄령선포》란 동은 단순히 몇몇 악질보수분자들의 잔동이 아니라 남조선사회에 살벌한 살륙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박근혜탄핵사태의 출로를 열어보려는 골수 보수패당의 모략에 따른 단말마적발악이다. 《유

신》악녀의 한푼 가치도 안되는 더러운 목숨을 건져보려고 온 남녘땅을 피바다에 잠그려는 극우보수패당의 망동은 4.19인민봉기와 5.18광주인민봉기를 총칼로 무참히 란도질한 군사파쇼독재의 후예들이나 감행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이른바 《계엄령》으로 하여 남조선사회가 얼마나 공포와 살륙의 지역으로 화하고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수많은 인민들이 총칼에 맞아 피흘렸는가는 남조선력사에 생동히 기록되어있다. 그런데도 그 최악의 력사, 끔찍한 참변을 오늘에 와서 재현시켜야 한다고 부르짖는 보수깡패들이야말로 인두겁을 쓴 야수들이고 칙결해야 할 살인악마들이라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계엄령선포》를 부르는 보수깡패들의 잔동이 박근혜와 청와대에 직접적인 배후조종밑에 벌어지고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민심의 탄핵살륙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박근혜탄핵사태의 출로를 열어보려는 골수 보수패당의 모략에 따른 단말마적발악이다. 《유

서 한쪽으로 《박사모》와 같은 보수패거리들을 내몰아 광화문광장 등에서 초불시위에 대처한 《맞불시위》라는것을 벌려놓게 하고 계속 뒤에서 조종하고있다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얼마전 박근혜가 극우인터넷방송과의 단독 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자기의 죄파를 전면부정하면서 초불반대참가자인원이 초불시위참가자보다 많아졌다고 뺏쳐대고 최순실이 특검조사를 받기 전에 《강압수사》, 《자백강요》를 떠든것도 사실상 극우보수세력들을 탄핵반대로 더욱더 부추기기 위한 선동행위였다. 미친개는 거저 죽지 않는다. 죽는 마지막순간까지 사람을 물려고 발악한다. 정치적운명의 막바지에 이른 박근혜가 자기의 추종세력들을 내몰아 《계엄령선포》란동을 부릴수록 새 정치, 새 사회를 요구하는 민심의 갈망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청와대악녀는 분노한 초불바다에 의해 타죽는 비참한 신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말은 입무에만 전력하겠다.》 반기문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일할 때 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새 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지없이 밝혀지고있다. 최근 반기문이 유엔에 《조선반도평화위원회》라는 기구를 내오고 그 수장으로 박근혜를 내세우는 대가로 권력의 자리를 넘겨받고 국제무대에서 박근혜의 몸값을 올려역도가 노벨평화상까지 타먹을수 있도록 서로 정치적밀약을 한 사실이 폭로되어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핵심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리재만이 평소 자기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밝힌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는 권력을 총동원하여 반기문을 다음 《대통령》자리에 들

영향력있는 유엔의 지도급인사로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다시말해 반기문이 10년동안 남녘 유엔발판을 리용하여 새로운 유엔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 수장자리에 자기가 앉을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 유엔기구는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인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조선반도평화위원회》로 명칭을 달기로 하였다. 박근혜는 기구를 내오고 그 수장으로 박근혜를 내세우는 대가로 권력의 자리를 넘겨받고 국제무대에서 박근혜의 몸값을 올려역도가 노벨평화상까지 타먹을수 있도록 서로 정치적밀약을 한 사실이 폭로되어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핵심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리재만이 평소 자기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밝힌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는 권력을 총동원하여 반기문을 다음 《대통령》자리에 들

세워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성공하면 박근혜는 앞으로 퇴임후의 안전은 물론 보수세력의 정신적지도자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 이런 타산밑에 박근혜가 반기문에게 손을 내밀었고 반기문도 이에 대해 적극 찬성하였으며 함께 움직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리재만은 토설한 것이다. 장사군은 재물을 놓고 흥정판을 벌린다지만 박근혜와 반기문과 같은 정치간상배는 권력을 놓고 흥정판을 벌린 것이다. 《유엔력사상 최악의 총장》, 《놀랄 정도로 유명무실한 인물》, 《주대가 없는 미국의 푸들》이라고 의신들이 평가한 반기문은 이렇게 유엔무대에서 미국의 노복이 되어 《북핵위협》이니, 《제재》이니 하는 따위의 반공화국대결나발을 짓어대면서 뒤에서는 권력에만 눈이 빨개 돌아앉은 것이다. 권력야욕에 환장한 반기문이 각종 추문사건으로 곤뎀어진 뒤옹박신세가 되어 청와대안방에만 틀어박혀있는 박근혜와 의 그 무슨 《차별화》를 운운하고있지만 그런 얄은 술수에 속을 사람은 없다. 본사기자 김혜성

권력을 둘러싼 추악한 밀약

《유신》 독재의 본을 편 정치레로

《우리 딸에 작년에 기말시험 본거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커닝했다. 점수 조작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땅크로 확!》

2013년 가을에 남조선의 한 극단이 공연한 연극 《개구리》에 등장하는 대사이다. 여기서 《딸애》는 박근혜를, 《기말시험》은 《대통령》 선거를, 《커닝》은 《부정시험》, 《점수조작》은 득표수조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보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같은 권력, 금권을 총동원하여 권력을 가로챈 박근혜를 풍자조소한 연극이 민심의 환영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만일 박근혜에게 털끝만 한 죄의식이라도 있었다면 그때 연극을 보면서 창피를 느끼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첩면파하기 그지없는 박근혜는 여기에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한 개인 복수의 이발을 갈았고 그것을 실천해왔다. 최근 폭로된 사실이 그것을 보여 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 추문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특검은 수사를 통

해 박근혜 《정권》이 문화예술, 교육, 출판보도 등 사회각계의 인물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을 비밀리에 만들어놓고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들을 박해하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보원, 행정부는 일명 《블랙리스트》, 《블루리스트》, 《적군리스트》로 불리우는 비밀명단들을 만들어놓고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거나 당국에 비판적경향을 보인 각계 인사들 지어 보수파라고 하여도 《정부》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을 명단에 박아넣고 그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일삼으면서 해당 부문에서의 승급과 《정부》지원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너털한짓을 감행해왔다고 한다.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참사의 《정부》책임을 지적하거나 지난 시기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약 1만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도저히 용납 못할 반민주적행위》, 《박근혜가 주범이 되어 감행

한 파쇼테로행위》라고 규탄하면서 《관련자처벌》과 《청와대해체》, 《정보원에 대한 엄정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비밀명단작성의 피해자들은 그들대로 박근혜를 직권람용죄로 고소하는 등 거세차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분노한 민심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관계자들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미 체포된데 이어 21일에는 《법꾸라지》로 소문난 전 청와대 비서관 김기춘과 조윤선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감투도 벗지 못한채 특검에 구속되어 구치소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을 경악시킬 색케 한 보수집권세력들의 비밀명단작성놀음은 저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그 어떤 비열하고 흉악한짓도 서슴지 않는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범 《정권》, 《정권》이라든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청와대는 비밀명단작성에 대해 일절 모르는것처럼 대응하고있으며 보수언론들은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기춘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

윤선의 주도하에 요시찰명단이 이루어졌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수세력들의 한갓 민심기만극에 불과하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와 여론들은 이번 사건이 《유신》독재자인 예비에게서 파쇼독재와 정보정치만이 만능이라는것을 배워온 박근혜가 자기의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행위로서 그 주범은 청와대악녀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극악한 파쇼독재자 박정희의 후예로서 예비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나아가는 박근혜의 반민주적폭정과 파쇼적전횡이 어느 지경이였는가를 그대로 실감케 하고있다.

정의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 인사들을 모두 《적》으로, 제거대상으로 삼고 온갖 박해를 가해온 박근혜 《정권》의 불법무도한 반민주적,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정의를 요구하는 민심의 심판대에 반드시 오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준

갈수록 험산이란 말이 있다. 아마도 지금 박근혜의 심기에 잘 어울리는 말일것이다.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을 립증하는 추가증거들이 련속 드러나 박근혜는 갈수록 궁지에 몰려 말이 아니다.

알려진것처럼 박근혜가 최순실과 전 청와대 1부속비서관 정호성과 함께 《대포폰》(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을 사용한 사실이 립증되어 또다시 여론이 들끓고있다.

박근혜의 《대포폰》 사용문제는 이미 2016년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국정풍단 사건긴급현안질문》때 제기되었는데 당시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가 도를 넘고있다.》고 하면서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런데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하나로 불리우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사이를 련결하는 중간다려역할을 해온 정호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장에서 박근혜가 자신과도 통화할 때 공식업무용 전화기보다 《대포폰》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공식 인정함으로써 박근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검은 박근혜가 사용한 《대포폰》은

최순실이 만들어준것으로 이미 정황을 포착하고있으며 《대포폰》을 사용한 리유는 최순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함인데 있겠고 첩저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고있다. 최순실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까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박근혜는 《비밀보안규정위반죄》, 《비밀루설죄》와

관공부 장관 조윤선을 구속함으로써 박근혜는 더욱 곤경에 빠져들게 되었다.

지금껏 정치추문사건의 모든 혐의와 사실여부를 하나하나 부정하며 살길을 찾아보려 모지름을 써온 박근혜는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법률대리인단관계자를 언론에 내세워 《해당 사건에 대해 일일이 립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 《이 단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립장을 밝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잘 대응할 것이다.》고 하면서 민심을 또다시 우롱하고 모욕해나섰다.

이에 남조선 각계가 격분한것은 물론이다.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즉시 성명과 기자회견, 집회 등을 열고 박근혜의 뻔뻔스런 처사를 규탄해나섰다.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불투쟁도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탄핵결정은 시간문제로 되었으며 제가 관함정에 깊숙이 빠진 박근혜가 정치적운명을 고할 날도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김련옥

빠져나갈 길은 없다

함께 최순실, 정호성과 함께 조직적으로 《국정》을 통략한 죄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것은 물론 지금까지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라는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박근혜의 지시로 《문화예술인 요시찰명단》이 작성된 사실도 드러나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 사건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감추기 위해 감행한것으로서 7시간행적의혹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하는 1만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요시찰명단》에 올려놓고 박해한 사건이다. 이 박근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검은 박근혜가 사용한 《대포폰》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립장을 밝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잘 대응할 것이다.》고 하면서 민심을 또다시 우롱하고 모욕해나섰다.

이에 남조선 각계가 격분한것은 물론이다.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즉시 성명과 기자회견, 집회 등을 열고 박근혜의 뻔뻔스런 처사를 규탄해나섰다.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초불투쟁도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탄핵결정은 시간문제로 되었으며 제가 관함정에 깊숙이 빠진 박근혜가 정치적운명을 고할 날도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김련옥

아직도 영민 살아서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부 장관 홍용표는 《정책자문회의 전체회의》라는데서 《북의 변화없이 비핵화문제를 풀기 어렵다.》느니, 《비핵화를 시작으로 평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박근혜의 파산된 《대북정책》을 지탱해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병신입에서 고운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동족의 일이라면 사사건건 헐뜯으며 허황하고 유치한 나발을 곧잘 불어대는 이자의 입에서 이따위 망발이 나오는것은 결코 놀랍지 않다. 하지만 제 주제를 보고 남을 걸고들라고 하였다.

반인민적약정과 북남대결망동에 광분하던 보수집권세력은 그 대가로 민심의 버림을 받고 그야말로 뒤간에 떨어져 나뉘는 가랑잎신세가 됐다. 인민을 등진 반역 《정권》이 무너지는것은 이제 시간문제라 되었다.

이러한 주제에 아직까지도 동족의 자위적행역제력을 걸고드는 홍용표의 교략서니는 대세에 역행하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선 박근혜의 비참한 파멸과 함께 종말을 고할 제놈의 가련한 처지도 가늠 못하는 천하바보의 너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제 밑 구린줄은 모르고 남만 시비질한다고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공화국의 핵억제력강화조치에 대해 입방아질하기

전에 미국의 북침책전쟁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하여 겨레의 머리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부터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것은 남조선의 력대 보수집권세력이 추구해온 변함없는 대결야망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수십년전 온갖 민족적불행과 비극을 낳은 전쟁의 근원인 《호상방위원조협정》과 같은 대국 《협정》, 침략 《협정》에서 습습이 맞도장을 늘렸으며 1958년 1월 29일 남조선에 처음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끌어들이리라 슬한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하여 핵이 없던 조선반도를 핵무기전시장으로 전변시켰다.

지금 공화국이 지구상 그 어떤 나라도 받아보지 못한 최대의 핵위협과 압박속에서 기적과도 같이 존재하고 최대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공화국에 강위력한 자위적행역제력이 있기때문이다.

만약 공화국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핵전쟁위협과 압박에 대항하는 자위적행역보유의 길을 걸지 않았더라면 오늘이 땅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졌겠는가. 이라크와 리비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미국의 침략의 마수가 뻗치는 곳마다에 흐르는 피와 눈물, 재난과 불행의 비극이 그대로 재현되었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과 고통을 강요당하였을것이다.

실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공화국이 보유한 강위력한 핵억제력은 그대대로 평화이고 부강번영이며 행복이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저들의 고질적인 대결약속을 다시금 드러내면서 동족을 암살하기 위해 발악하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군부호전광풍을 내몰아 《북의 미사일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합동참모본부에 《대량살상무기대응센터》를 신설한다, 미일상전들과 《해상합동훈련》을 강행한다 어쩌다 하며 북침전쟁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사실이 이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려는 도발책동이며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암살행역을 실현하려는 실로 어리석은 망동이다.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은 수처와 파멸의 길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여기에 매달릴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질것이며 종말에는 비참한 종말의 시각만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도발》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23일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신년기자회견이라는것을 열고 판에 박힌 대결복통을 또다시 두들겨댔다. 이자는 이날 술한 기자들을 모아놓은 《군정한 안보력량과 〈한〉 미련함방위체제를 바탕으로 북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북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느니, 《전방위적대북체제의 틀을 통해 북의 비핵화를 계속 견인해나갈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허세를 부렸다. 이보다 앞서 19일에도 《중앙통합방위회의》라는데서 《군은 북의 도발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북이 도발할 경우 현장에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호전적나발을 불어댔다.

황교안의 이러한 추태는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고 초상집신세가 된 제 집안 꼴을 《안보위기》조성으로 가리워보려는 정신병자

의 어리석은 망동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민심은 최순실과 같은 선무당에게 조종당하면서 민생을 도날 술한 기자들을 모아놓은 《군정한 안보력량과 〈한〉 미련함방위체제를 바탕으로 북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북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느니, 《전방위적대북체제의 틀을 통해 북의 비핵화를 계속 견인해나갈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허세를 부렸다. 이보다 앞서 19일에도 《중앙통합방위회의》라는데서 《군은 북의 도발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북이 도발할 경우 현장에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호전적나발을 불어댔다.

황교안의 이러한 추태는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고 초상집신세가 된 제 집안 꼴을 《안보위기》조성으로 가리워보려는 정신병자

도 《국정원》정치개입사건과 정윤희 《국정》개입사건 등 박근혜 《정권》에 치명적타격을 준 사건들을 호지부지하여 깔아뭉개고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는데 돌격대로 나섰던 극우보수깡패이다.

박근혜의 손발이 되어 남조선을 오늘과 같은 인의 간생지옥으로 만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사사건건 가로막아온 이런자가 권한대행이라는 감투까지 뒤집어쓰고 그 누구의 《도발》과 《안보위협》에 대해 떠들며 동족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격의 낮뜨거운 추태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야당들과 각계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령임한 황원한대행이 국정풍단에 큰 책임이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도 아무 일도 없다는듯 뻔한 얘기를 늘어놓는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 《국론분열 운운하며 극단적대립을 지양해야 한다》고 국민을 혼계한것은 정말 자신의 신분을 착각하고있는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보수패당이 그 누구의 《도발》이니, 《안보 위기》니 뭐니 하는 나발질로 저들에게 쏠린 민심의 저주와 심판을 모면해보려는 상투적인 수법은 이제 더는 통할수 없다.

황교안과 같은 박근혜의 노복들은 속이 뻔트름히 들여다보이는 얄은수를 쓰면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려할것이 아니라 민심의 요구대로 박근혜와 함께 《순장》되는 운명의 그날까지 가만히 입을 닫고있는것이 현명한 처사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김진혁



날로 꽃피는 민족 전통

설명절이 왔다. 어디서나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전변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 광명한 래일을 향해 내달리는 인민들의 벅찬 숨결이 가슴후덥게 안겨오는 이 땅우에 밝아온 설명절은 끝없는 환희와 낭만,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다.

오늘 누구나 즐겁게 쇠는 설명절에는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성을 더욱 빛내여주시려고 것처럼 마음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가 뜨겁게 깃들어 있다.

주체86(1997)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정의감이 강하고 용감하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레의도덕이 밝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우리는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설명절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대로 쇠어야 한다고 하시며 설명

절과 관련한 풍습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오면서 우수한 민족전통과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풍습을 창조해왔다.

설명절풍습만 보더라도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설을 맞으며 자기 부모들과 동네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였고 서로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날에는 윷놀이, 널뛰기, 연피우기, 썰매타기, 팽이치기 등 민족놀이도 하고 세찬이라고 하는 설음식도 해먹으면서 설을 즐기었다.

이런 훌륭한 민족성, 아름다운 생활풍습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로 전락되었다. 일제의 압제 밑에서 우리 겨레는 전통적으로 즐겨오던 설명절마저 빼앗겼으며 설날아침에는 하얀 민족옷에 일본

놈들이 물총으로 쏘는 먹도 설명절은 허울뿐이고 각종 양풍, 왜풍이 범람하여 전통적인 생활풍습이 사라져가고 있다.》

큰 산의 웅장함을 알려거든 멀리서 대비속에 보라는 말이 있다.

이역땅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들도 민족적풍습과 지방의 극장들에서 다채로운 예술공연들이 진행되고 각지에서 학생소년들의 민족놀이와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이 열기를 띠고있으며 봉사자들은 다양한 설명절음식들을 봉사받는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이밖에도 스승을 찾는 제자들과 부모들을 찾아뵙는 자식들, 가족, 친척, 친우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기쁨넘친 모습들을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재북평화통일축협회의 회 회원 정규진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세계화》의 소용돌이속에 많은 나라들에서는 고유한 민족적 전통들이 사멸되어가고있다. 내가 살아온 남조선에

사람들마다 기쁨에 넘쳐 즐기는 행복의 설날, 설명절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싶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은 창광거리에 있는 떡국집앞에 멈춰섰다.

정갈하고 아담하면서도 민족적특성이 살아나게 꾸려진 떡국집안에 들어서니 뜨끈한 떡국을 훌훌 불며 맛나게 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흥겹게 해주었다.

흰쌀로 만든 가래떡을 썰어서 끓는 고기장국에 넣어 고기와 계란, 실고추와 파, 구운 김으로 고명을 얹고 참깨와 후추가루로 맛을 낸 뜨끈한 떡국은 보기엔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옛날 사람들은 천지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설날에는 모든것이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떡국을 먹었는데 1819년에 나온 《월양세

사람들마다 기쁨에 넘쳐 즐기는 행복의 설날, 설명절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싶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은 창광거리에 있는 떡국집앞에 멈춰섰다.

정갈하고 아담하면서도 민족적특성이 살아나게 꾸려진 떡국집안에 들어서니 뜨끈한 떡국을 훌훌 불며 맛나게 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흥겹게 해주었다.

흰쌀로 만든 가래떡을 썰어서 끓는 고기장국에 넣어 고기와 계란, 실고추와 파, 구운 김으로 고명을 얹고 참깨와 후추가루로 맛을 낸 뜨끈한 떡국은 보기엔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옛날 사람들은 천지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설날에는 모든것이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떡국을 먹었는데 1819년에 나온 《월양세

그러면서 공화국에서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유한 생활세대가 반영되어있는 《떡국만들기》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이곳에서는 떡을 직접 만들어 봉사할뿐 아니라 가래떡을 만들어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손쉽게 떡국을 만들어먹을수 있도록 주문봉사도 진행하고있었다.

실로 민족의 향취풍기는 떡국의 구수한 냄새가 금강산의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담은 그림들과 참대문양과 무릉도원을 형상한 벽장식들로 하여 민족정서가 물씬 풍기는 식당내부의 꾸밈새와 어울려 설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본사기자 고영숙

그러면서 공화국에서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유한 생활세대가 반영되어있는 《떡국만들기》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이곳에서는 떡을 직접 만들어 봉사할뿐 아니라 가래떡을 만들어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손쉽게 떡국을 만들어먹을수 있도록 주문봉사도 진행하고있었다.

실로 민족의 향취풍기는 떡국의 구수한 냄새가 금강산의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담은 그림들과 참대문양과 무릉도원을 형상한 벽장식들로 하여 민족정서가 물씬 풍기는 식당내부의 꾸밈새와 어울려 설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본사기자 고영숙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설명절풍습에는 차례와 세배, 설음식대접, 민족 놀이가 있다.

차례는 설날 새벽에 먼저 돌아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것을 말한다. 설명절의 차례상에는 여러가지 제사음식들과 함께 반드시 떡국을 올렸으

므로 《떡국차례》라고도 하였다.

차례가 끝나면 명절웃음 차려입고 집안과 마을의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였다. 세배는 여러가지 축하의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사법인 조선절로 하였다. 세배풍습은 우리 민족이 웃사람을 존경하고 레의를 귀중히 여겨온 데서 생겨난것이다.

설명절날 명절음식을 차례놓고 가족, 친척들과 이

웃들끼리 나누어먹는것이 제일 이채로왔다. 설명절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였는데 대표적인것으로는 찰떡, 설기떡, 절편과 같은 떡류와 지짐, 수정과, 식혜, 고기구이 등이였다.

설명절의 민족놀이로는 윷놀이와 널뛰기, 연피우기와 썰매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바람개비놀이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모여 놀수 있는 윷놀이가 제일 인기였다.

마을녀인들이 모두 모여 줄길 널뛰기도 설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설명절날에 아이들은 새해에 자기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연피우기놀이를 하였다. 설명절풍습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풍습, 아름다운 민족성이 짙게 어

설명절의 민족놀이로는 윷놀이와 널뛰기, 연피우기와 썰매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바람개비놀이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모여 놀수 있는 윷놀이가 제일 인기였다.

마을녀인들이 모두 모여 줄길 널뛰기도 설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설명절날에 아이들은 새해에 자기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연피우기놀이를 하였다. 설명절풍습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풍습, 아름다운 민족성이 짙게 어

설명절의 민족놀이로는 윷놀이와 널뛰기, 연피우기와 썰매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바람개비놀이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모여 놀수 있는 윷놀이가 제일 인기였다.

마을녀인들이 모두 모여 줄길 널뛰기도 설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설명절날에 아이들은 새해에 자기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연피우기놀이를 하였다. 설명절풍습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풍습, 아름다운 민족성이 짙게 어



설명절의 민족놀이로는 윷놀이와 널뛰기, 연피우기와 썰매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바람개비놀이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모여 놀수 있는 윷놀이가 제일 인기였다.

마을녀인들이 모두 모여 줄길 널뛰기도 설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설명절날에 아이들은 새해에 자기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연피우기놀이를 하였다. 설명절풍습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풍습, 아름다운 민족성이 짙게 어

설명절의 민족놀이로는 윷놀이와 널뛰기, 연피우기와 썰매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바람개비놀이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모여 놀수 있는 윷놀이가 제일 인기였다.

마을녀인들이 모두 모여 줄길 널뛰기도 설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설명절날에 아이들은 새해에 자기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연피우기놀이를 하였다. 설명절풍습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풍습, 아름다운 민족성이 짙게 어

설명절의 민족놀이로는 윷놀이와 널뛰기, 연피우기와 썰매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바람개비놀이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모여 놀수 있는 윷놀이가 제일 인기였다.

마을녀인들이 모두 모여 줄길 널뛰기도 설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설명절날에 아이들은 새해에 자기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연피우기놀이를 하였다. 설명절풍습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풍습, 아름다운 민족성이 짙게 어

사화 매화 한그루 (3)

드디어 소원을 이룩한 김홍도는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있을 것 같지 않도록 호호하기 그지없었다. 어디 그 뿐이랴. 매일처럼 독축이 성화같은 남의 빛 오십푼을 물고도 몇기를 먹을수 있는 난알을 살수 있는 돈이 남았으니 기쁨이던 이보다 더한 기쁨이 또 어디 있겠는가.

김홍도는 민씨의 마을이 갑자기 변하여 팔지 않겠다고 흥정을 뒤집어엮거나 돈을 더 내라고 억지를 쓸가보아 잔뜩 마음을 졸이며 덩치듯 화분을 와락 그러안고 부리나케 그 자리를 떴다.

아까 그 사헌부 지평의 집앞을 지날즈음 저도 모르게 김홍도의 저음도 크게 울려퍼졌다. 갈 때 얼핏 본 사람이 생각났던 것이었다. 김홍도가 담장밑으로 눈길을 돌리는 순간 그 사람도 똑 찡찡이던 얼굴을 들었다. 두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김홍도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보았다. 누

사람은 총주 안골 외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 있는 전서방으로 김홍도와와는 낯으로나 알뿐 외가와와는 물론 그자신과도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 그냥 스쳐버려도 누가 탓할 것이 없는 그러러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김홍도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원 이런, 이백여러박에 사는 전형이 어떻게 여기에...》

《아니, 자네 도화서에 다닌다는 그...》

《그런데 어떻게 그 먼 시골에서 도성출입할 틈을 다 내셨소. 지금 농사차비가 한창일텐데...》

《거... 뭐... 집안에 불상사가 생겨서...》

전서방은 기색이 컴컴하여 호느끼듯 서글프게 말꼬리를 흐렸다.

《집안에 불상사가...》

저으기 놀란 김홍도는 그제서야 비로소 전서방의 행색을 다시금 살펴본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 물기어린 눈, 얼마나 울었는지 부풀어오른 눈

전서방은 거의나 울상이 되어 마다하였다.

김홍도는 그의 정상을 헤아릴수록 눈물이 겨움도록 축은하였다.

주막에는 손님 내어섯이 들어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김홍도는 빈 상자에 화분을 조심히 내려놓았다. 그것을 본 손님들이 술잔을 집어던지고 화분을 둘러쌌다. 눈이 등잔마냥 휘둥그레진 그들 주인이 나타났다. 그는 대번에 환성을 올렸다.

《히야! 흰매화! 매화가 옳지? 눈이 너무 시여 그냥 볼수가 없구만. 세상에 이렇듯 희한한 꽃도 다 있는가!》

이어서 그는 《이 보물이 어디서 날아들었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고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먼저 와있던 손님들이 김홍도를 가

은 이렇게 회고 생생한 꽃도 다 있는가,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구경조차 하지 못할 지경으로 훌륭한 꽃이다. 난생 처음보는 이 꽃은 필경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것이 틀림없다는 등의 찬란을 런발하였다.

《아-니... 저... 난...》



우리 주막이 다 환해지고...》

어찌나 감동되었던지 허도 제대로 놀리지 못하며 수선을 떠는 주막주인에게 김홍도가 입을 열었다.

《주인, 우리 두사람은 배가 고프오. 꽃구경은 뒤에 하고 밥부터 내오오. 오랜만에 외가마을 사람을 만났는데 좀 잘해서...》

그러던 김홍도는 목이 메어 말끝을 맺을수가 없었다. 배가 고프고 울고있을 두 어린것과 그들을 품에 안고 애를 태울 안해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안겨왔기때문이었다.

그들앞에 큰 죄를 지은 듯 가슴이 옥죄어들었으나 참으로 속으로 빌었다. (애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는 다르게는 처신할수 없구나.)

《잘해올리고말고요!》

그들앞에 큰 죄를 지은 듯 가슴이 옥죄어들었으나 참으로 속으로 빌었다. (애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는 다르게는 처신할수 없구나.)

《잘해올리고말고요!》

그들앞에 큰 죄를 지은 듯 가슴이 옥죄어들었으나 참으로 속으로 빌었다. (애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는 다르게는 처신할수 없구나.)

맛갈스런 안주들을 곁들여 들어왔다.

《전형, 어서 드시우. 보아하니 몹시 시창한것 같아... 우리 집으로 가서 대접해야겠지만 너무 멀기도 한즉 우선 여기서 이걸루 요기를 하고 봅시다.》 하며 김홍도는 양풍의 탁주를 한사발 툄며서 전서방의 손에 친절히 들러주었다.

전서방은 탁주사발을 선뜻 받지 못하고 《이거 뭐... 이런 신세라구야. 썩 썩!》 하며 손건사를 어떻게 할지 몰라 갑자르기만 하였다.

그가 먹거나말거나 아랑곳없이 주막주인은 제 욕심 차리기에 급급했다.

《단원선생, 이 흰매화를 내가 가지고싶은데... 혹시 팔려다니는게 아닌가요?》

《...》

김홍도는 어이가 없어 대답을 안하였다.

《내가 아무리 서울까지로 소문이 났지만 선생이 내는 물건에는 내후히 맘을 쓰리다.》

《술 팔아 돈맛을 보더니 이제 꽃장사까지? 파시 각쟁이다운 타산이로군.》